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멕시코



United Mexican States

2020년 5월 6일 | 조사역(G3) 조현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964천 km ² 	인구 1.3억 명 (2019 ^e)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주의 
GDP 1.3조 달러 (2019 ^e) 	1인당GDP 9,868달러 (2019 ^e) 	통화단위 Peso (Ps) 	환율(US기준) 19.26 (2019 ^e) 

- 멕시코는 1.3억 명의 인구나 1,964천 km²에 달하는 영토를 보유한 세계 15위 및 중남미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석유, 은, 아연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원유 수출 및 대미 교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과 미국의 대외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AMLO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소박한 정부를 표방하며 위협적인 야당의 부재 속에 안정적으로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마약 카르텔과 치안 불안 등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폭락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음.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이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발효를 통해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경장벽 설치 문제 등으로 양국 간 갈등 요소가 잠재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 26 수교 (북한과는 1980. 9. 19 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69), 문화협정('69), 사증면제각서교환('79), 항공협정('89),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0), 이중과세방지협약('95), 범죄인인도조약('97),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97), 관광협력('97), 투자증진·보호협정('02), 세관협력협정('06), 형사사법공조조약('07),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13)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 품목
수출	10,932,591	11,458,233	10,927,016	자동차부품, 철강관, 평판디스플레이
수입	4,407,479	5,090,068	6,159,866	원유, 기타금속광물, 자동차부품

해외직접투자 현황(2019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425건, 5,878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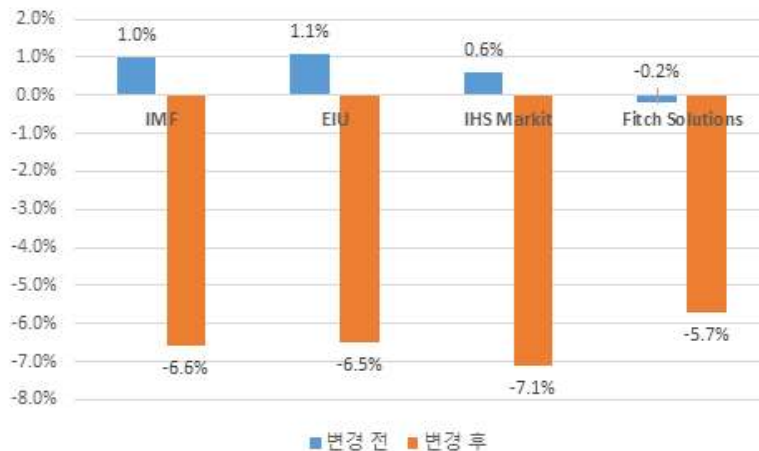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3.3	2.9	2.1	2.1	-0.1
소비자물가상승률	2.7	2.8	6.0	4.9	3.6
재정수지/GDP	-3.4	-2.5	-1.1	-2.0	-1.7

자료: EIU

2009년 이후 10년 만의 마이너스 경제성장 기록

-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원유 생산량 감소와 세계경제 저성장 등으로 2%대로 하락한 이후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기름 절도단'의 송유관 공격, 대선 전후의 불확실성, AMLO 대통령 당선 이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중단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감소 등으로 인해 2019년 -0.1%까지 둔화 추세가 계속 되었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5.3%의 역성장 이후 10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임.
- 멕시코 중앙은행은 2019년 8월부터 7회 연속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특히 금년 3월 20일과 4월 21일에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및 경제 지원을 위해 각각 50bp씩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현재 기준금리는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6.0%임. 그럼에도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 따른 제조업 위축과 유가 폭락으로 인한 석유수출 수입 감소,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의 경기침체 예상 등에 따라 멕시코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음.
- 멕시코의 물가상승률은 목표범위(2~4%)에 근접하게 관리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올해 내로 기준금리가 4.5%까지 추가 조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멕시코 경제성장률에 대한 주요 기관의 전망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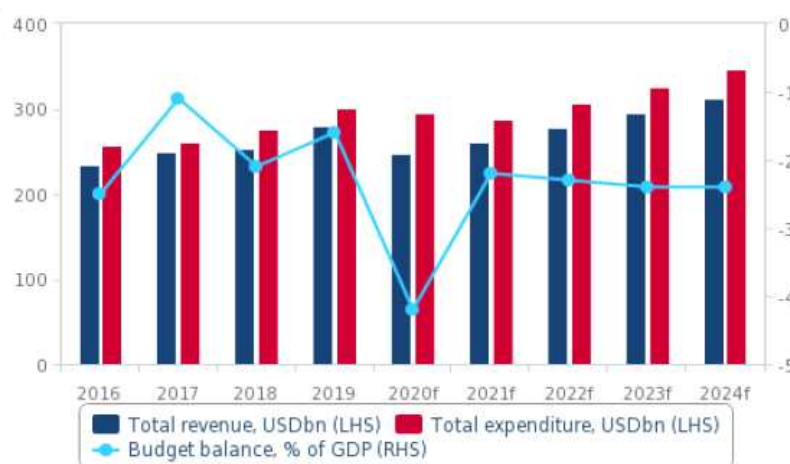
자료: IMF WEO, EIU, IHS Markit, Fitch Solutions

국내경제

국영 석유기업 PEMEX의 경영 악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수지 적자 악화 우려

- 포퓰리즘에 입각한 복지정책 시행 및 국영 석유기업 PEMEX의 회생을 위한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AMLO 행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2019년 멕시코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1.7%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음.
- AMLO 대통령은 취임 이후 7개월 동안 고위 공무원의 수를 665명 줄인 데 이어 관용차, 통신비 지원 등 공직자의 특권을 대폭 축소하고 봉급을 삭감하였음.
- 기름 절도단이 송유관을 공격하여 석유를 탈취하는 피해액이 연간 30억 달러(약 3조 3,600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PEMEX는 생산시설 노후화 등으로 원유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2019년에는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각각 7.6%, 4%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약 2배인 175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자본금 잠식 상태에 처해 있음.
- Fitch는 국제유가 하락 등을 이유로 PEMEX의 신용등급을 4월 3일 BB+에서 BB로, 17일에는 BB-로 연속 강등하였으며, Moody's 또한 4월 17일 동사의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2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하여, 두 기관 모두 PEMEX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분류하였음.
- PEMEX의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멕시코 정부의 재정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까지 겹치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4.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세수가 줄어 2020년 멕시코 정부의 재정수입이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멕시코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추이 및 전망



f = Fitch Solutions forecast. Source: Banxico, Fitch Sol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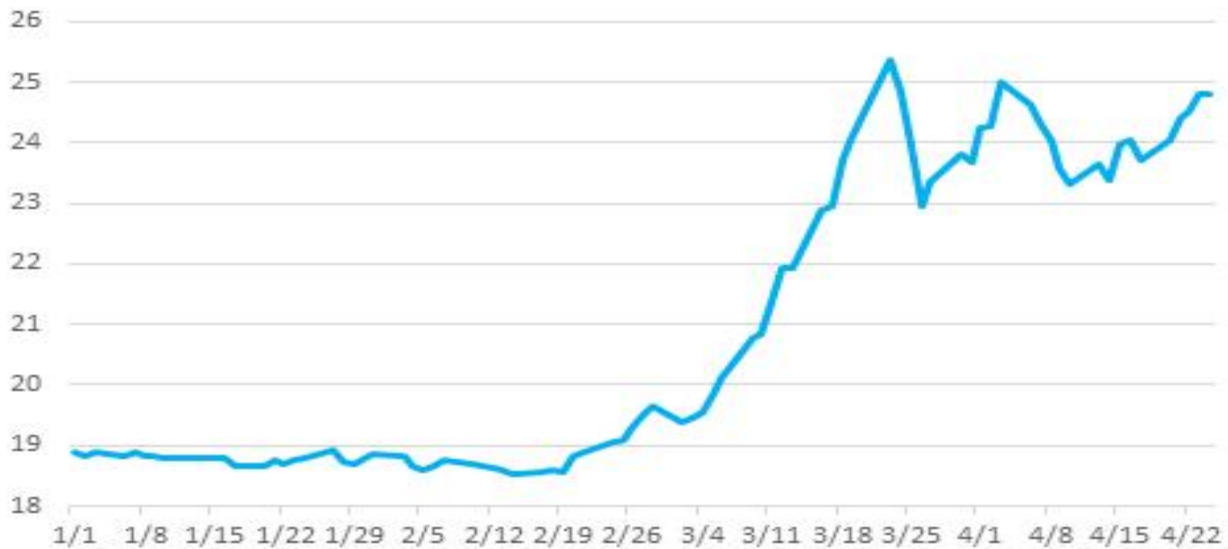
자료: Fitch Solutions

국내경제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유가 급락 등의 악재가 겹쳐 페소화 가치 급락

-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국제유가 폭락 사태로 3월 초 중남미 각국 금융시장은 '블랙 먼데이'를 겪었으며, 특히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 산유국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가운데 멕시코 증시의 IPC 지수 역시 11년 만의 최대 낙폭인 6.42% 하락을 기록하였음.
- 3월 18일 멕시코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20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시장 개입을 밝혔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페소화 환율은 3월 23일 25.36페소로 역대 최고치(연초 대비 34% 상승)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달러당 23~25페소 수준을 유지 중임.

멕시코 페소화 환율 변동('20.01.01~04.24)



자료: Bloomberg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 상 수 지	-31,011	-24,311	-20,495	-23,004	-2,444
경상수지/GDP	-2.7	-2.3	-1.8	-1.9	-0.2
상 품 수 지	-14,599	-13,070	-10,984	-13,796	5,624
상 품 수 출	380,977	374,305	409,806	451,054	461,451
상 품 수 입	395,575	387,375	420,790	464,850	455,828
외 환 보 유 액	168,373	168,746	164,892	165,197	170,580
총 외 채	426,435	412,600	436,558	466,732	493,926
총외채잔액/GDP	36.4	38.3	37.7	38.2	39.2
D.S.R.	11.7	11.5	9.8	8.5	8.3

자료: IMF, EIU

2019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축소되었으나 2020년에는 다시 확대될 전망

- 2019년 멕시코의 경상수지는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가와 중간재 수입 감소에 따른 상품수지의 흑자 전환과 관광업 활성화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의 현저한 감소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0.2%로 전년(-1.9%) 대비 개선되었음.
-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력 분야인 자동차 제조업과 관광업이 타격을 입고, 국제 유가 폭락 및 석유의 국제수요 위축으로 석유수출 수입(收入)이 감소하며,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의 대 멕시코 수입 수요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2.0%까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 자동차협회는 산업 보호를 위해 멕시코 정부에 동 산업의 필수산업 지정을 요구하였고, AMLO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4월 8일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이 재가동되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영업 재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한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이은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간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으로 7월 1일 발효 예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합의 및 비준 과정의 지연으로 인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는 긍정적 효과와, 자동차 수출에의 악영향 및 해외근로자 송금액 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공존할 것으로 평가됨.

외채상환능력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풍부한 외환보유고 확보

- 외국인직접투자의 꾸준한 유입 결과 외환보유고는 2019년 말 1,706억 달러로 전년(1,652억 달러) 대비 증가하였음. 이는 멕시코의 2019년 월평균수입액의 3.8개월분에 해당함.
-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9에 의하면, 2018년 멕시코의 FDI 순유입액은 247.46억 달러로,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미주 내 3위에 해당함.
- 다만 AMLO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코로나19 및 유가 폭락 사태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 신흥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고 있어 향후 외환보유고 추이에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외채 관련 지표는 양호한 수준 유지

- 2019년 말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39.2%이며, D.S.R.은 역내 주요 국가들이 30%대를 기록한 데 비해 8.3%로 한 자릿수의 안정적인 수준에서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등 외채 관련 지표들이 비교적 양호함.
- 다만,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를 지속하여 2020년 말에는 56.1%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D.S.R. 또한 10.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09년 IMF와 470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 신용공여(Flexible Credit Line, FCL) 협약을 체결한 뒤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유동성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 단기대외지급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 지난해 11월 IMF는 동 협약의 금액을 740억 달러에서 610억 달러로 조정하며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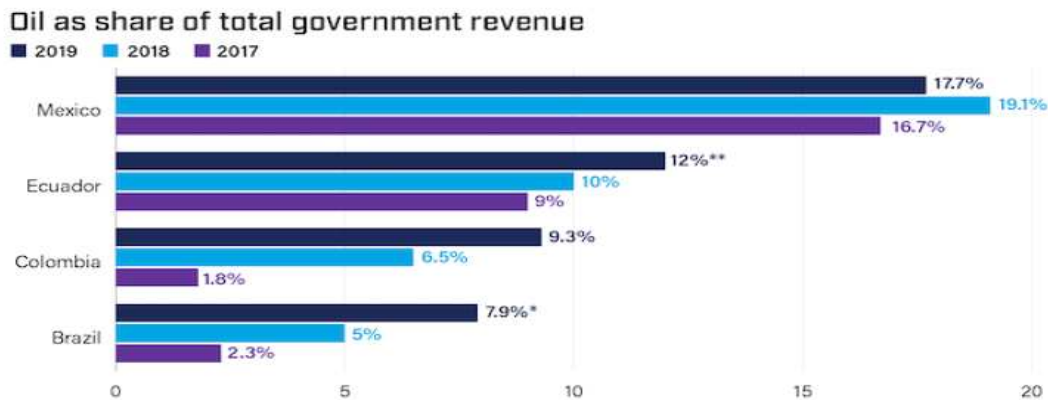
구조적취약성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

- 멕시코는 세계 11위 및 중남미 2위의 산유국으로,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2018년 기준 일평균 산유량은 206.8만 배럴로 세계 원유 생산량의 2.2%를 차지함.
- 멕시코 재무부에 따르면 원유 관련 수입이 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17.7%로 전년(19.1%)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역내 타 산유국* 대비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

* 에콰도르: 12%, 콜롬비아: 9.3%, 브라질: 7.9%

중남미 주요 산유국의 정부수입 중 원유의 비중



*Including 2019's transfer of rights auction
**Ecuador 2019 data available until October

Sources: National Treasury of Brazil, Brazilian Petroleum Agency (ANP), Finance Ministry of Colombia, Central Bank of Ecuador, Finance Ministry of Mexico

자료: Eurasia Group 재인용(원자료 출처: 브라질 재무부, 브라질 석유청, 콜롬비아 재무부, 에콰도르 중앙은행, 멕시코 재무부)

- 3월 유가 폭락 사태로 멕시코의 IPC 지수는 11년 만의 최대 낙폭인 -6.42%를 기록하였고, 폐소화 가치는 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대외 리스크 증가 등을 근거로 3~4월 국제신용평가사의 멕시코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한 단계 하향 조정된 바 있음.

미국에 편중된 교역구조는 USMCA 발효로 더욱 심화될 전망

- 미국은 2019년 기준 멕시코 수출의 83% 및 수입의 47%를 점유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멕시코 경제는 미국의 경기 및 대외정책 방향에 따라 받는 영향이 막대하며, 2020년에는 USMCA의 발효를 앞두고 있어 미국에 편중된 교역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향후에는 대미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다각화 전략을 통해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에 대한 멕시코의 수출액은 3,588.7억 달러, 수입액은 2,061.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수출은 4.1% 증가, 수입은 4.7% 감소한 수치임.

구조적취약성

수출품 구성이 단조로우며,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산업 분야에 타격 예상

- AMLO 대통령은 유카탄 반도의 관광 명소를 지나는 '마야 관광열차'(Tren Maya) 사업을 4대 핵심공약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관광업 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관광업은 멕시코의 주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이동 제한으로 인해 올해 동 분야에서 2,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멕시코는 2019년 기준 자동차 관련 품목(26%)과 전자기기(17%), 기계류(17%) 수출이 총수출의 60%를 차지하는 등 수출품의 구성이 단조로운 편임. 특히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조업이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고, USMCA 발효 이후 경쟁력 상실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 멕시코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USMCA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면세기준이 강화되어, 자동차 제조업체가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요구되는 역내산 부품 비율이 현재의 60~62.5%에서 2023년 말 70~75%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고임금 노동자(시간당 임금 16달러 이상)가 생산하는 구성품이 자동차 1대당 40~45% 이상이어야 함. 멕시코 자동차 분야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이에 크게 미달하여, 상기 요건의 충족을 위해서는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 비중이 줄어드는 결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성장잠재력

석유 및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멕시코는 2018년 기준 원유 확인매장량이 77억 배럴로 세계 19위에 해당하며, 아연(세계 4위)과 은(세계 6위)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인구 1.3억 명의 내수시장을 갖춘 중남미 제2의 경제 대국임.

북미와 중남미를 잇는 지리적 이점

- 멕시코는 북미와 중남미 대륙을 연결하는 국가로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북미의 미국, 캐나다와는 발효를 앞둔 USMCA를, 중남미의 페루, 콜롬비아, 칠레와는 태평양동맹(PA)을 통해 역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 USMCA는 교역 규모가 1조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며, PA는 2.3억 명의 인구와 2.13조 달러의 GDP 규모를 보유한 중남미 지역의 경제블록임. 특히 PA의 경우 준회원국 제도를 설정하여 ASEAN,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타 경제블록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고질적인 범죄 문제 등으로 성장에 제약

- 세계경제포럼(WEF)의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에 따르면, 멕시코는 제도(141개국 중 98위), 인적자본 기술력(89위), 노동시장(96위) 등의 부문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세부지표 중 조직범죄(140위), 투명성(116위), 미래 노동인구의 기술력(102위) 등의 항목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하여, 만연한 범죄 및 부정부패와 열악한 인적자원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정책성과

반부패 개혁과 복지정책 강화

- AMLO 대통령 취임 이후, 직전 65년간 여당 자리를 지켜온 제도혁명당의 부패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반부패 수사를 진행하고 서민 복지를 강화하였음.
- 또한, 대선 당시 공약 내용이었던 '소박하고 투명한 정부'의 실현을 위해 스스로 임금을 40%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매물로 내놓은 뒤 민항기를 이용하였으며, 경호팀을 축소하고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없애며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또한 대통령궁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주 5일 아침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USMCA 비준

- 2018년 9월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1994년부터 유지되어 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을 위한 합의를 완료하였음. 이후 미국 노동자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부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미 의회의 주장에 따라 수정 협상을 거쳐 2019년 12월 10일 수정안에 최종 합의하였음.
- 지난해 12월 3국 중 가장 먼저 멕시코가 비준을 마쳤으며, 지난 1월 미국, 3월에 캐나다가 비준을 완료하여 USMCA는 7월 1일 발효될 예정임.
- USMCA는 당초 6월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자동차 제조업을 포함한 일부 산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시행 연기를 요구한 바 있음.
- USMCA가 멕시코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북중미 지역 공급사슬이 안정화되는 효과와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에서 멕시코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무역관계에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우호적인 투자 및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기침체 및 투자자 신뢰 하락

- AMLO 행정부는 전 정권의 친시장 정책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멕시코시티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 등 국가 주도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을 중단하여 정책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자 신뢰 하락을 초래하였음. 또한 국영 석유기업 PEMEX의 경영 악화 지속으로 인해 동사를 지원하기 위한 멕시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 2.1%, 2019년 -0.1%로 AMLO 대통령이 2018년 대선 당시 내세웠던 연평균 4%에 크게 못 미치며,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술적 경기침체(2개 분기 연속 GDP 감소)에 들어섰음.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초기부터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면 사회적 피로감이 발생하고 추후 가용 수단이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봉쇄조치를 뒤늦게 실시한 것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실패로 지적받고 있어, 2020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6.6%까지 악화될 전망이다.

정책성과

범죄율 증가 지속

- AMLO 행정부는 전 행정부의 직접적인 범죄조직 소탕이 오히려 폭력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하며 일자리 창출과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범죄 관리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2019년 멕시코의 살인 건수는 34,582건으로 2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으며, 2020년 3월 초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으로 '범죄와의 싸움'이 1위(22.7%)로 꼽힌 바 있음.
- 3월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주변국들의 강력 범죄 수치가 감소세를 보인 반면, 멕시코에서는 하루 평균 83건에 달하는 2,585건의 살인이 발생하여 월별 기준으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정치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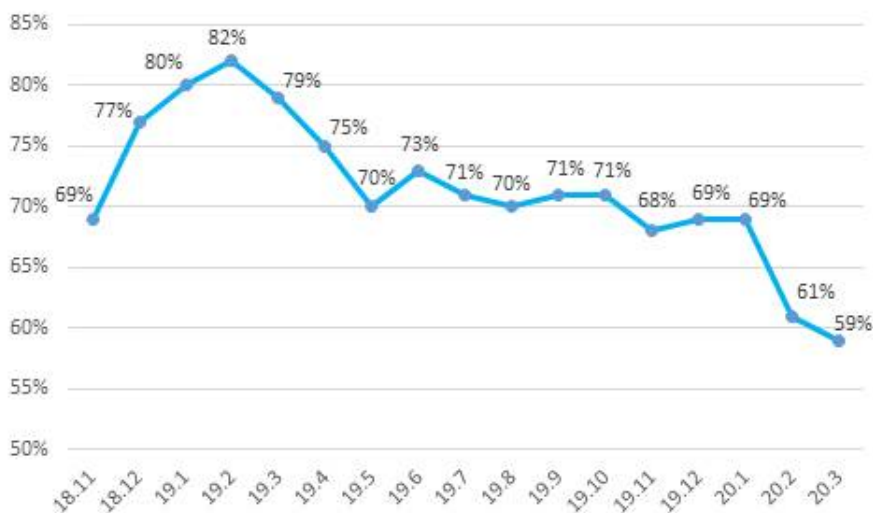
AMLO 대통령 소속의 국가재건운동(MORENA)이 연정을 통해 의회의 과반 의석 점유

- AMLO 대통령 소속당인 중도좌파 국가재건운동(MORENA)은 상원 의석의 45.3% 및 하원 의석의 38.6%를 점유하고, 연정을 통해 상·하원 모두 과반(상원 54.7%, 하원 62.4%)을 점유하고 있으며, 일부 군소 정당의 표가 더해진다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전체 의석의 2/3) 확보도 가능하여 최근 20년래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집권당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제1야당인 국민행동당(PAN)은 상원 의석의 24석(18.7%)과 하원 의석의 80석(16%)을 차지하는 데 그쳐 MORENA를 정치적으로 견제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AMLO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 AMLO 대통령은 2018년 7월 선거에서 53.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이후 경기 부진 등에도 반부패 개혁과 복지정책을 앞세워 지난해 70% 내외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음.
- 그러나 마약 카르텔의 활동을 비롯하여 멕시코 사회의 고질적인 불안요소인 범죄율 증가와 코로나19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으로 인해 1월 69%였던 지지율은 2월 61%, 3월 초 59%에 이어 3.27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49.6%로 집계되어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하락하였음.

AMLO 대통령 지지율 추이



자료: 멕시코 여론조사 기관 Oraculus

사회동향

마약 카르텔의 범죄 및 공격으로 열악한 치안

- 멕시코에서는 'el Chapo'(키 작은 남자)라는 별명으로 불린 마약 카르텔 두목 호아킨 구스만이 2014년 까지 200톤이 넘는 마약을 밀매하며 약 40억 달러(2016년 추정치)의 재산을 축적하여 '마약왕'으로 통칭 되는 등 마약 카르텔이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음.
- 구스만은 2번의 탈옥 끝에 2016년 다시 체포된 뒤 미국으로 넘겨져 지난해 7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멕시코에는 가장 악명 높은 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을 비롯하여 여전히 다수의 마약 카르텔이 활동하고 있음. 이들은 경쟁 조직과의 세력 다툼뿐만 아니라 군경과 민간인에 대한 범죄 및 공격을 자행하여 멕시코의 치안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음.
- 미국 내 마약 시장의 1/3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CJNG를 대상으로 미국이 '파이선 프로젝트'로 명명한 대규모 소탕 작전을 펼치며 6개월 간 750여 명을 체포하고 20톤 규모의 마약을 압수하였으나 여전히 마약 카르텔의 총격, 방화 등 범죄가 빈발하고 있음.
- 한편,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현행 작전이 파이션 프로젝트의 1단계일 뿐이라며 향후 가차 없는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음.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됨.

만연한 여성 폭력에 대한 반발로 항의 시위와 파업 등 발생

- 멕시코에서는 지난해 하루 평균 10명이 넘는 여성들이 살해되었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검거와 처벌률이 극히 낮아, 성별을 이유로 발생한 살해 사건을 가리키는 '페미사이드'(femicide)라는 표현이 대두되며 멕시코 여성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음.
- AMLO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7.1%로 집계된 3.5자 여론조사에서 여성으로부터의 지지율은 53.3%로 남성의 지지율(60.3%) 대비 낮았음.
-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8만여 명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과 폭력에 항의 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9일에는 멕시코 전역에 걸쳐 3,640만 명이 여성 총파업에 참여함으로써 '여성 없는 하루'를 진행하였음.

국제관계

AMLO 행정부, 1년간 대외관계보다는 국내 정무에 치중

- AMLO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동안 외국을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던 반면, 국내에서만 지구 네 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동하며 임기 초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음. 이에 따라 2019년 6월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에 불참하여, 일각에서는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USMCA 수정안 관련 미국과의 갈등은 일단락

- 2019년 12월 USMCA 수정안에 멕시코의 노동개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정부가 자국의 노동부 관리를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파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이에 멕시코는 자국 내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바 없는 내용을 수정안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노동감독관 파견은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였음.
-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외교차관은 미국을 방문하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담을 가졌고, 이후 미국은 미국과 멕시코 인사가 포함된 3인의 독립 전문가 패널이 멕시코의 노동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담당관들이 멕시코의 모든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해명하여 갈등이 봉합되었음.

중남미 이민자 행렬로 인한 미국과의 마찰

- '캐러밴'으로 불리는 중미발 미국행 이민자들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자국 횡단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으나, 관세 부과 위협 등을 앞세운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자 지난해 6월부터 국경수비대를 배치하여 이들의 이동을 저지하기 시작하였음.
- 한편 미국은 중남미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 지역에 2021년을 목표 시한으로 장벽을 설치 중임. 그러나 동 과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멕시코 정부에 건설 비용 부담을 요구하여 양국 간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2일 코로나19 차단을 이유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영주권 소지자의 가족이나 취업 목적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60일 간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음. 이에 이어 2020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및 마약 카르텔 문제에 대해 보다 강경한 공약을 내세울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사안들에 대한 대처가 멕시코의 대미 관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관계

OPEC+의 감산 요구 거부에 따른 후폭풍 우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가 폭락에 대응하기 위한 OPEC+의 감산 합의 과정에서 멕시코는 자국에 배정된 일일 감산량(40만 배럴)을 수용하지 않고 10만 배럴만 감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4월 9일 OPEC+ 참여국 화상회의를 퇴장하여 최종 합의를 무산시킨 바 있음.
- AMLO 행정부는 생산량이 감소하며 경영난에 처해 있는 국영 석유회사 PEMEX의 회생을 통한 에너지 산업 현대화 및 육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일 산유량을 현재 약 178만 배럴에서 2024년까지 250만 배럴로 늘릴 계획임.
- 이후 미국이 멕시코 대신 25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하여 4월 12일 OPEC+의 감산 합의가 성사되었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AMLO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는 시선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체 산유국 공통의 이익보다 자국의 이슈만을 우선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불편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며 향후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중장기 위주의 외채구조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2019년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멕시코에 대한 여신잔액 158.56억 달러(단기 53.65억 달러, 중장기 104.9억 달러) 중 연체액은 1.28억 달러로 0.8%에 불과하며, 외채의 66.2%가 중장기 외채로 안정적인 외채구조를 지니고 있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19.10)	3등급(2018.10)
Moody's	Baa1(2020.04)	A3(2017.04)
Fitch	BBB-(2020.04)	BBB(2019.06)

국가신용등급은 양호하나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는 하향 조정 추세

- 멕시코는 2009년 이후 OECD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도 지속적으로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받아왔음.
- 그러나 지난해 6월 정부 주도 프로젝트의 잇따른 중단 등 AMLO 행정부 하의 정책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투자자 신뢰 감소, 국영 석유기업 PEMEX의 경영 악화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증가 등을 근거로 Fitch는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Moody's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공시하였음.
- 이후 코로나19 사태 및 유가 폭락으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 우려와 대외 리스크 증가를 근거로 4월 15일 Fitch가 BBB에서 BBB-(투자부적격등급 직전 수준)로, 4월 17일에는 Moody's가 A3에서 Baa1으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하여, 국제신용평가사의 멕시코에 대한 평가가 모두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원유 생산량 감소 및 세계경제 저성장 등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9년에는 주요 프로젝트의 중단에 따른 투자자 신뢰도 감소와 USMCA 발효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0.1%를 기록하여 10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하였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관광업이 위축되고, 유가가 폭락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6.5%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기조와 상품수지 흑자 전환 등에 힘입어 2019년 쌍둥이 적자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2020년에는 국영 석유기업 PEMEX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의료 분야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국제유가 폭락 및 제조업 부진으로 경상수지 적자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AMLO 행정부는 연정을 통한 과반 의석 확보와 취임 1년 간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나, 마약 카르텔 등 고질적인 범죄 문제와 치안 불안으로 지지를 잃고 있으며 불법 이민자 및 국경장벽 문제로 미국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유가 폭락 등으로 2020년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저조한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이 모두 하향 조정되는 추세임.